

대강당 배움의 중심

대강당 내부에는 승려들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를 나누는 2 개의 논의대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대강당의 높은 천장에서 튕겨져 나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법상종에서는 명상 등 다른 종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실천보다는 학문에 힘쓰는 면학을 중시하는 만큼, 대강당은 오래 전부터 야쿠시지 절의 본절이자 대표적인 장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의의 주제는 초기 인도의 대승불교에서 번성했던 불교철학과 심리학의 학파인 유식파와 관련된 것입니다. 유식파는 654년 도쇼(629~700)라는 인물에 의해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도쇼는 중국으로 건너간 후, 인도 불교를 중국으로 들여온 유식파의 창시자 현장(602~664)에게 가르침을 받은 일본인 승려입니다. 현장이 동아시아에 전한 유식파의 가르침은 일본에서는 ‘법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든 현상이 마음의 현상이라는 이 생각은 법상종의 가르침과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매년 4월에는 국가의 안운을 기원하는 사이쇼에(最勝會)라는 법요가 열리는데, 이때 승려들의 논의가 나라 시대에 이루어졌던 방식 그대로 재현됩니다.

대강당은 매년 11월에 야쿠시지 절의 승려들이 수험을 치르는 시험용 회장으로도 사용됩니다. 승려들은 옛말로 쓰인 약 2시간 분량의 논의 내용을 21일에 걸쳐 학습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대강당 내부에는 석가모니의 직제자이자,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10인의 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들은 조각가 나카무라 신야(1926~)의 작품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끈기가 있으면 보통 사람이라도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